

THIS IS GLOBAL LIFE

# the Traveller

2010  
11

뜨거운 리우데자네이루  
이제, 두바이보다 도하  
군마에서 즐기는  
달빛 아래 노천욕  
사진평론가 진동선이 들려주는  
'올드 파리'

박노해의 오랜 방랑  
이스탄불에서  
오르한 파묵을 만났다

**THE TABLE**  
세계 4대 진미의 위약과 진심  
깊고 뜨거운 술 6잔  
오! 나의 크로아티아 시골 식탁 순례기  
베를린 재봉왕들의 독일 빵 자랑

## Detroit Renaissance

버려진 도시에서  
따뜻한 도시로,  
디트로이트 진화의 역사

₩7000



# the Traveller

NOVEMBER 2010 VOL. 32



→PAGE 88

버려진 도시에서 따뜻한 도시로,  
디트로이트 진화의 역사

### DETROIT RENAISSANCE

오래전, '자동차의 도시' 디트로이트는 미국에서 가장 화려하고 운터한 도시였다. 불행히도 미국 자동차 산업이 쇠락의 길로 접어들면서 많은 사람이 디트로이트의 몰락을 우려했다. 그러나 편견과 오해가 이 도시를 둘러쌀 때 디트로이트는 조용히 재기를 준비했다. 디트로이트가 새로운 얼굴로 우리 앞에 나타났었다.

**92** 부활의 시작, 리버프런트 프로젝트  
디트로이트 강을 사이로 캐나다 원자와 마주 보고 있는 리버프런트 파크는 어둡고 음산한 디트로이트의 이미지를 단번에 쇠산했다. 버려진 건물과 녹슨 철로가 삼합한 풍경을 연출하던 이곳을 이제 연인들은 유행선을 타고 아이들은 회전목마를 타는 낭만의 리버사이드다.

**96** 달콤한 키지노의 도시  
디트로이트가 키지노의 도시라는 사실은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 필라델피아가 지난 9월 열 번째로 새로운 키지노 입장을 열기 전까지 디트로이트는 미국 동부 최대의 키지노 도시였다. 한 곳 차이로 2위가 됐지만 키지노 호텔'의 혜택을 누리기에는 부족함이 없다.

**100** 디트로이트 숲(Soul)의 재기를 꿈꾸며, 소셜 아트 프로젝트  
'기본만이 디트로이트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유일한 힘은 아니다. 디트로이트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셜 아트 운동은 디트로이트의 상처를 보듬는다.

**108** Once Upon a Time in Detroit  
21세기의 디트로이트를 하얗없이 걷다 보면 20세기 초반의 미국으로 훌쩍 되돌아간 느낌이 든다. 미래로 도약하는 디트로이트가 굳이 과거를 자유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도시가 소중히 지켜낸 '과거는 무엇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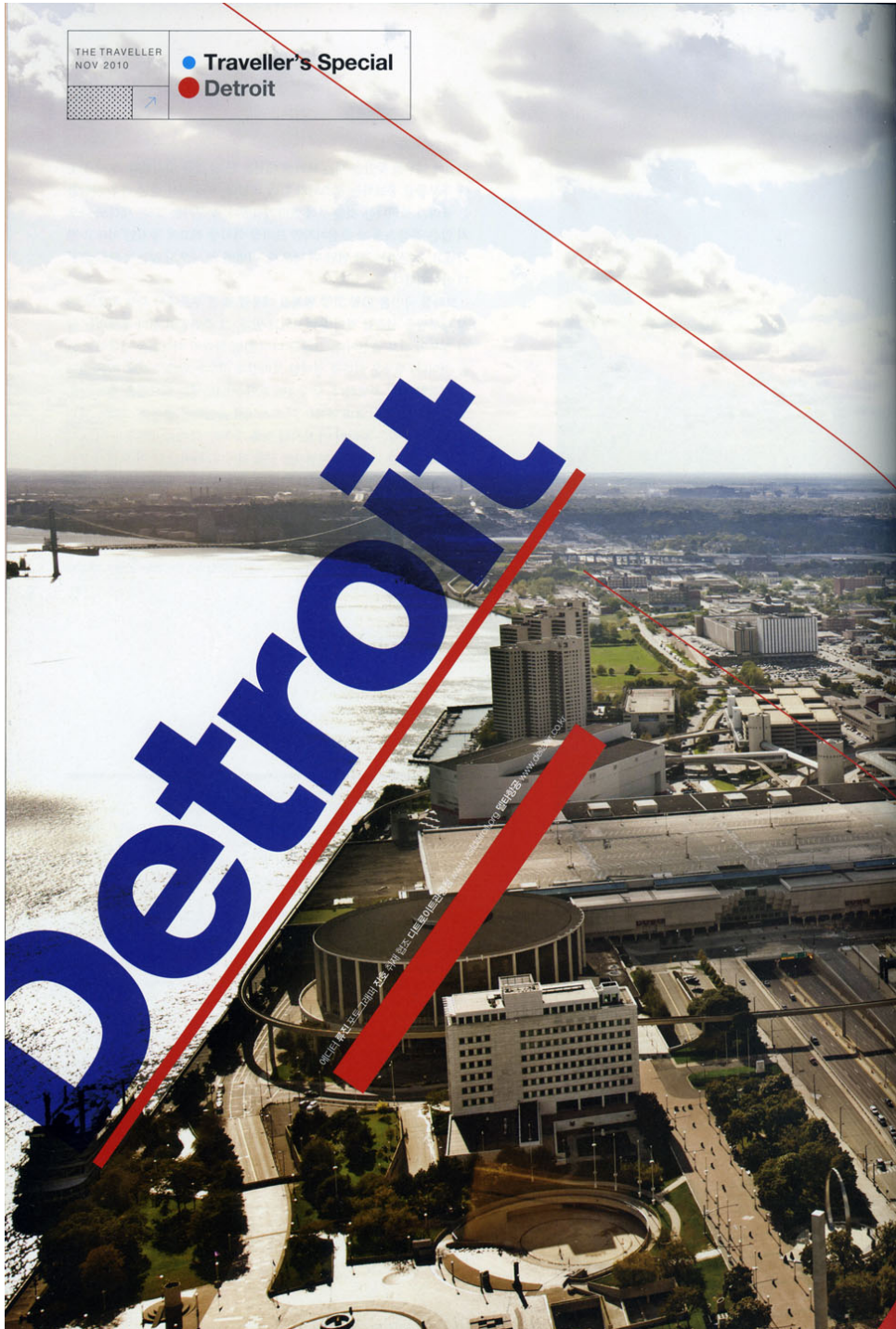
**112** 디트로이트 사람처럼 주말 나기  
디트로이트관광객의 큰레 모토들이 디트로이트 사람들이 실제로 주말을 보내는 장소를 귀림해했다.



THE TRAVELLER  
NOV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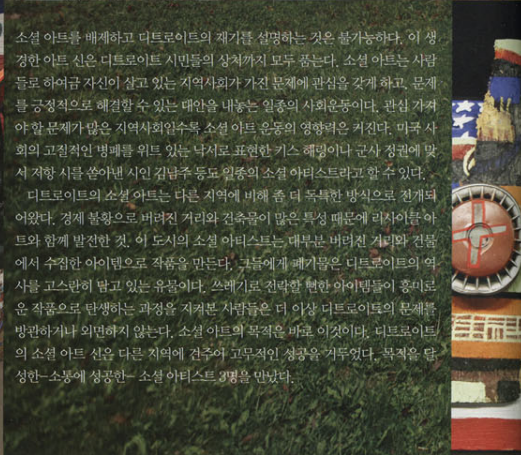
● Traveller's Special  
● Detroit

# Detroit



# Renaissance





소셜 아트를 배개하고 디트로이트의 재기를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생경한 아트 신은 디트로이트 시민들의 상처까지 모두 품는다. 소셜 아트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가 가진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하고,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는 일종의 사회운동이다. 관심 가져야 할 문제가 많은 지역사회인수록 소셜 아트 운동의 영향력은 커진다. 미국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를 워드 있는 타자로 표현한 키스 해링이나 군사 정권에 맞서 저항 시를 읊어낸 시인 김남주 등도 일종의 소셜 아티스트라고 할 수 있다.

디트로이트의 소셜 아트는 다른 지역에 비해 좀 더 독특한 방식으로 전개되어왔다. 경제 불황으로 버려진 거리와 건축물이 많은 특성 때문에 리지아틀 아트와 함께 발전한 것. 이 도시의 소셜 아티스트는 대부분 버려진 거리와 건물에서 수집한 아이템으로 작품을 만든다. 귀찮게 폐기물은 디트로이트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유물이다. 쓰레기로 진락한 아이템들이 흥미로운 작품으로 탄생하는 과정을 지켜본 사람들은 더 이상 디트로이트의 문제를 방관하거나 외면하지 않는다. 소셜 아트의 목적은 바로 이것이다. 디트로이트의 소셜 아트 신은 다른 지역에 견주어 고무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목적을 달성한-소통에 성공한- 소셜 아티스트 3명을 만났다.

# Social Artist

# Interview

디트로이트 솔(soul)의 재기를 꿈꾸다  
 재단이 디트로이트 재개발 전까지는 활동 아니다. 디트로이트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셜 아트 운동은 디트로이트의 양면 도본다

디트로이트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셜 아트 운동은 디트로이트의 양면 도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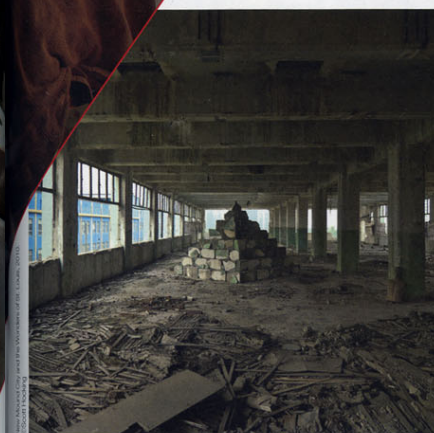


허름한 외관과는 반대로 매력적인 아이디어가 넘치는 스콧 호킹의 작업실. 그는 다양한 요소를 사진 촬영에 동해준 유쾌한 아티스트다.

## 폐허 위에 피라미드를 쌓는 남자

스콧 호킹은 디트로이트를 기반으로 뉴욕과 호주에서 활동하는 소셜 아티스트다. 그는 버려진 건물과 오브제를 활용해 설치물을 만들고 그 설치물을 사진으로 찍어서 갤러리에 전시한다. 작품을 사진으로 기록하는 건 그가 주로 버려진 건물 안에 작품을 설치하기 때문이다. 그의 작품은 언제 치워질지 모른다. 그 불명확성, 비영원성이 스콧의 작품을 더욱 특별하게 한다.

스콧 호킹은 버려진 건물에 벽돌, 드럼통, 콘크리트 조각 등을 쌓아 피라미드를 만든다.



스콧 호킹  
Scott Hocking의  
작업실은 금방이라도 투박  
2pac이 랩을 하면서 뛰쳐나올 것 같  
은 허름한 거리에 있었다. 우리가 만나기로 한  
'아티스트' 스콧 호킹이 아니라 동맹이인인 '홀리스' 스  
콧 호킹의 집으로 잘못 찾아온 줄 알았다.  
영화배우 니컬러스 케이지를 닮은(그보다 더 젊고 잘생긴) 스콧 호  
킹은 환한 웃음으로 우리를 받았다.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외관과는  
달리 작업실 내부는 환상적이었다. 디트로이트의 예전 별명인 '환상적인 간  
해'는 스콧 호킹의 작업실을 두고 하는 말이다. 버려진 것-그가 수집한 작업  
의 재료-과 새롭게 태어난 것-그의 작품-이 어우러진 공간은 신비롭기까지  
했다.

스콧은 컴퓨터 화면에 자신의 작업물을 띄워놓고 큐레이터처럼 친절히 도  
스트해줬다. 화면에는 타이어를 겹겹이 쌓아 만든 피라미드 모형이 있었다.  
다른 사진에도 벽돌이나 대리석 같은 폐자재를 쌓아올린 피라미드가 있었다.  
왜 피라미드를 쌓느냐는 질문에 기다렸다는 듯 스콧이 대답한다.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피라미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  
적인 과거의 유적이예요. 그것을 현대사회의 유물로 재현함으로써 과거와 현  
재의 개념을 무의미하게 만들었어요. 또 피라미드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  
입니다. 사람들에게 피라미드는 미스터리한 존재예요. 내 작품을 보는 사  
람들 역시 미스터리하다는 피드백을 보내오는데, 저는 이런 반응을 좋아합니  
다.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나의 피라미드는 미스터리라는 점에서도 공통점을  
갖고 있죠."

디트로이트의 버려진 집과 폐기물은 적어도 스콧 호킹에게겐 스펀지가 아니  
다. 스콧은 그것들을 '디트로이트의 흥망성쇠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역사 그  
자체'라고 표현했다. 그래서 스콧의 작품은 현재에 만들어졌지만 과거의 유  
물이기도 하다. 이 사실은 그가 전달하고자 하는 '과거와 현재는 같은 시간'이  
다와 같은 맥락이다. 역사를 상징하는 오브제들을 통해 디트로이트의 300년  
역사를 다른 방식으로, 온전히 표현하고 싶다고 그는 말했다.

"사람들이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것이 나의  
과제가 목표입니다. 많은 사람이 디트로이트는 쇠락한 도시라는 편견을 갖  
고 있지만 지금의 디트로이트는 '아름다운 시대'로 넘어가는 전환기. 과도기  
일 뿐이에요. 인간이 죽어가는 모든 것을 싫어하는 이유는 그것을 '실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내 생각은 다릅니다. 영원한 소멸은 없습니다. 자연은 돌  
고 돌아오.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의 도시 디트로이트가 자동차 산  
업의 몰락으로 잠시 주춤했다고 해서 이 도시의 유구한 역사와 정체성까지  
흔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과거의 디트로이트를 잊고 미래의 디  
트로이트를 기대해야 합니다."

최근 스콧 호킹은 버려진 건물의 기둥과 텔레비전을 활용해 '신들의 정원'  
시리즈를 만들었다. 문명사회에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조종하는 가장 강력  
한 미디어의 특질을 스콧은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 그의 이야기를 듣다가 참  
지 못하고 '당신은 천재가 분명하다고' 말해줬다. 스콧의 메시지는 우주적이  
었다. 인터뷰어가 객관적일수록 인터뷰이와의 대화 사이에 흐르는 기운이 팽  
팽해져서 더 내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만 '객관성'은 이미 있는 지 오래였  
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소녀 팬의 마음이 절로 돌아왔다. '나를 찾아와줘서 정  
말 고맙다'고 말하는 스콧 호킹은 겸손함까지 갖춘 '남자'였다. 인터뷰어가 이  
성으로 보인 건 그가 처음이다.